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8호 HYUNBULNEWS.COM 2025년 2월 12일(음력 1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항상 봄과 같을지이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입춘을 맞아 사중에 입춘 휘호 '惟願吾家四季如春(유원오가사계여춘)'을 내렸다. 휘호에는 '오직 원하옵건데 우리집 사계절이 항상 봄과 같이지이다'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에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는 "오늘 밤 편히 쉬고 싶거든 바로 지금 한생각 쉬어 버리세. 따스한 봄바람 아름다운 꽃향기 내 마음 봄 향기 눈가에 미소 피네"라는 찬(讚)을 남겼다.

## 아이돌부터 드라마까지 불교, 미디어를 사로잡다

**블랙핑크 제니 신곡 'ZEN'서**
**불교적 가사 · 상징 해석 '화제'**
**아이브 장원영 예능서 추천한**
**'초역 부처의 말' 서점서 열풍**
**"불교 향한 청년층 관심 '폭발'**
**미디어 부문에 그대로 투영돼"**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유명 아이돌 블랙핑크 제니의 신곡 〈ZEN〉부터 아이브 장원영이 유명 예능에서 추천한 불서 〈초역 부처의 말〉의 품귀현상까지. 최근 미디어에서 불교 관련 소재가 연일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불교를 향한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미디어에도 반영됐다는 방증이다.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 멤버 겸 솔로 가수 제니는 1월 25일 유튜브 채널 '제니(JENNIE)'에서 신곡 〈ZEN(젠)〉을 발표했다. ZEN은 '선(禪)'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본질을 깨우치는 불교 사상을 뜻한다. 실제 〈ZEN〉의 가사와 뮤직비디오에는 '공(空)' '무아' '번뇌' '명상' '연꽃' 등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제니는 지난해에도 불교의 진언(眞言)을 뜻하는 〈Mantra(만트라)〉를 발매해 주목받은 바 있다.

온라인에서는 제니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ZEN〉의 영어 가사를 불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가사 분석 영상 등에 따르면, 가사에서 'Fire aura, quiet chatter. Shoot, shoot, shoot, I make them scatter. They can't move my matter(불타는 깨달음(아우라), 은밀한 속삭임. 총성을 울려라, 나는 그들을 흔드니. 그들은 나의 본질을 흔들지 못하리라)'에서 'Fire aura'는 명상하며 의식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깨달음 혹은 알아차림을, 'quiet chatter'는 명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의미한다. 또한 번뇌가 '본질'을 움직일 수 없다는 가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깨닫는 사상인 선(禪)을 드러내고 있다.

제니의 신곡으로 불교를 접하게 된 대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불교의 '선'을 제목으로 하고 가사에서도 불교적 내용을 담은 제니의 신곡 〈ZEN〉에 압도 당했다" "불교책을 읽어봐야겠다" "진짜 살다보니 선불교를 소재로 한 대작을 볼 줄이야" "제목에서 불교 느낌 가득해서 너무 좋다. 고요하고 영적인 느낌" 등 호평을 쏟아냈다.

아이돌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1월 15일 유명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언급한 불서 〈초역 부처의 말〉도 서점가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초역 부처의 말〉은 일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저서로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위로를 전하는 '힐링 불서'다.

장원영은 해당 방송에서 "최근에 읽었던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 MC 유재석의 질문에 〈초역 부처의 말〉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원영은 "책에서 '집착하지 마라'는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다. 만사에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자꾸 집착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라며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치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보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책을 추천했다.

방송 직후 책 판매량은 급증했다. 방송이 나간 2주간(1월 15일부터 29일까지) 판매량이 전월 대비 약 29배(2829.9%) 올랐고, 2월 2일 기준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비롯해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며 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입증했다.

인기 드라마에서도 불교를 소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청률 13.8%를 기록한 화제의 SBS 금토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는 격무에 지친 직장인이 불교를 통해 힐링하는 모습이 나온다. 올해 1월 방영된 1화에서 직장 상사의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서미애(이상희) 이사'는 방에서 혼자 〈반야심경〉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또 이직을 두고 걱정이 많은 양호진(권혁) 팀장이 생각을 정리할 때마다 찾는 장소로 '사찰'이 등장한다.

이처럼 불교가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불교에 대한 대중의 높은 호감도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가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는 템플스테이 등 불교를 향한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불교가 젊은 세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파악한 젊은 작가와 미디어 종사자들이 불교를 방송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불교를 알아갈 수 있어 전법·포교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다만, 불교계에서는 이 화제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자를 배출하고 신행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3면〉

## 동국대 불교대학생 등 행자교육 과정 간소화되나

**출가장려특위, 2월 4일 3차 회의**
**출가 과정서 중도 이탈 방지 기대**
**교육원에 계단위 등과 협의 요청**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정범 스님, 출가장려특위)가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 군승 희망 동국대 4학년 학생, 출가 연수 또는 사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불자가 출가할 경우 행자교육 과정을 간소화 해주는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이는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출가 과정의 부담으로 인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가로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출가장려특위는 2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군승 자원 확보를 위한 종법 개정안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 출가, 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 등 출가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정범 스님은 "매년 동국대 불교대학에는 일반 학생 50명이 입학한다. 그 가운데 출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1~2명으로 극히 적다"며 "4년간 불교를 배우고 익힌 인재들을 출가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도 소년출가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행자교육과정 면제를 언급하며 군승을 희망하는 동국대 4학년 학생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원 스님은 "동국대 4학년 군승 희망자들은 이미 염불, 습의, 법문 등 교육을 거쳐 발심출가로 임관했다"며 "(교육 때문에) 마음 내지 못하는 이들이 군승으로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출가 기간 합산 1년 이상일 경우 행자교육과정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월정사, 봉녕사 출가학교 등 사찰에서 실시하는 출가 프로그램 이수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앙종회의원 법해 스님(진관사 주지)은 "한국불교 미래와 사찰 운영에 출가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단위 사찰에서도 출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통일된 프로그램 구축과 법 개정,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한 출가장려특위 위원스님들은 행자교육 조정을 위해 계단위원회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교육원에 요청했다.

출가장려특위는 이날 군승 자원 확보를 위해 임관을 희망하는 동국대 4학년 학생이 2학기 때 취업계를 낼 수 있도록 교육원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해당 사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동국대와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은퇴출가자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토론회를 거쳐 은퇴출가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 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청소년 출가자 확대를 위해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해 불교 관련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설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